

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

성 명 : ( )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각각 1어절로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읽기 능력은 ( ㉠ ) 능력에서 독해 능력으로 발달한다. ( ㉠ ) 능력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음운 인식, 단어 재인, 읽기 유창성 등의 하위 기능들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읽기 유창성은 단어 재인 기능과 독해 능력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읽기 유창성은 자동성, ( ㉡ )성, 표현성으로 구성되는데, 자동성은 글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 ( ㉡ )성은 글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표현성은 글을 적절한 의미 단위로 유연하게 끊어 읽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중등 학습자의 읽기 유창성 부족은 다른 여러 교과에 전반적인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2.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1)의 ‘-히-’는 피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고, (2)의 ‘-히-’는 사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1) ㄱ. 다음 달에 여행 계획이 잡혔다.  
 ㄴ. 도로가 차들로 막혔다.

(2) ㄱ. 엄마가 아이에게 연필을 잡혔다.  
 ㄴ. 그는 난로에 물을 덥혔다.

(1ㄱ)과 (1ㄴ)에서 ‘-히-’에 의해 형성된 피동사들의 경우에는 ( ㉠ )이가 같다. 반면 (2ㄱ)과 (2ㄴ)에서 ‘-히-’에 의해 형성된 사동사들의 경우에는 ( ㉠ )이가 같지 않다.

(1)의 ‘잡히-’와 (2)의 ‘잡히-’는 ‘잡-’에서 파생된 어간들이다. 이때 동사 ‘잡-’은 피동사 ‘잡히-’에 대응되느냐 사동사 ‘잡히-’에 대응되느냐에 따라 다른 종류의 동사로 해석된다. 피동사 ‘잡히-’에 대응되는 ‘잡-’, 사동사 ‘잡히-’에 대응되는 ‘잡-’은 각각 ( ㉡ )이다. 이처럼 ‘잡-’이 ( ㉡ ) 중 어떤 동사인지는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응되는 동사가 피동사인지 사동사인지에 의해 결정된다.

3.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문법적인 설명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설명이 개념적 정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그 설명이 다른 설명들과 정합적이어야 한다.

- (1) 밥 먹어.
- (2) 밥 먹어요.
- (3) 일찍 일어나.

(2)에서 ‘먹어요’의 ‘요’의 경우, (1)의 ‘먹어’를 고려할 때 적어도 어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1)의 ‘먹어’에서 ( ㉠ )(이)라는 것과 (2)의 ‘먹어요’에서 ‘요’가 어미라는 것은 서로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3)의 ‘일어나’는 동사 ‘일어나-’에 어미 ‘-아’가 결합한 서술어이다. ‘일어나- + -아 → 일어나’에서 탈락한 /ㅏ/가 어미의 /ㅏ/인지, 동사 어간 ‘일어나-’의 /ㅏ/인지를 음운론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형태·통사론적 사실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는 동사 어간의 /ㅏ/가 탈락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명력이 있다. (3)에서 ‘일어나’는 문장에서 서술어인데, ‘일어나’가 서술어라는 사실은 ‘일어나’가 ( ㉡ )(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일어나’가 ( ㉡ )(이)라는 사실과 ‘일어나’에서 탈락한 모음이 어미의 /ㅏ/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4.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되 ㉠은 1어절로, ㉡은 2어절로 쓰시오. [2점]

(가)  
 군위(君位)를 보비라 홀씨 큰 명(命)을 알외요리라 바루 우회 금탑(金塔)이 소스니  
 자호로 제도(制度) | 날씨 인정(仁政)을 맛도리라 하날 우회 금척(金尺)이 느리시니 (83장)

도상(道上)애 강시(僵尸)를 보샤 침식(寢食)을 그쳐시니 민천 지심(旻天之心)애 괴 아니 뿌디시리  
 민막(民瘼)을 모르시면 하늘히 브리시느니 이 뜨들 닛디 마르 쇼셔 (116장)

백성(百姓)이 하늘히어늘 시정(時政)이 불홀(不恤)홀씨 역배 군의(力排群議)호샤 사전(私田)을 고티시니  
 정감(征斂)이 무예(無藝)호면 방본(邦本)이 곧 여리느니 이 뜨들 닛디 마르쇼셔 (120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

(나)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왕조의 건립 과정에서 개국의 시조가 초월적 존재로부터 ‘천명(天命)’을 부여받았다고 함으로써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용비어천가』의 편찬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으니, 그들은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미리 신탁(神託)을 받았다는 것을 ( ㉠ )이라는 군왕의 상징적 증거 물을 통해 현시함으로써 이성계와 그의 왕조를 신성화하였다. 그러나 『용비어천가』의 편찬자들은 이에 머물지 않고 군왕을 향한 정치적 권계(勸誡) 의식을 명시적으로 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천명의 존재는 이론적 근거로 기능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종래의 천명론이 아니라 ‘유교적 천명론’에 기대어 자신들의 요청 사항을 군왕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교적 천명론은 초월자의 계시에 의해 천명이 확보된 다기보다는 ‘민심(民心)’이라는 경험적 현실을 통해 그 실재 여부가 입증된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군왕이 민심을 상실할 경우 ( ㉡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천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다음을 읽고, 설득 목적의 발표를 위한 청중 고려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설득 의사소통에 대한 자료  
 사회적 판단을 요하는 메시지를 접하면 우리는 먼저 자신이 찬성하는 것, 반대하는 것, 중립적인 것으로 사안을 분류하고 각각 허용, 거부, 불개입 범위에 포함시킨다. 사안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이 높으면 허용 혹은 거부 범위가 넓고 이에 따라 불개입 범위가 좁다. 메시지가 수신자의 허용 혹은 불개입 범위에 있고 메시지의 입장이 수신자의 원래 입장과 상이한 정도가 클수록 태도 변화 가능성이 높다. 메시지가 거부 범위에 있고 거부 범위가 넓다면 주장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나) 화법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자료  
 청중을 고려한 설득적 발표의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교수자가 과제 난도를 고려해야 한다. 청중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낮을수록 과제 난도는 높아지게 된다.

(다) 사전 수업 협의록  
 김 교사: 설득 목적의 발표 수업을 하려고 해요. 학생마다 발표 능력이 다르니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게 수행 과제의 난도를 달리하여 과제 조건을 나눠야겠어요.  
 이 교사: 청중의 입장을 달리 설정하면 어떨까요?  
 박 교사: 청중의 개인적 관련성이 높고 낮음을 구분해 보아도 좋겠어요.  
 김 교사: 두 변인을 모두 고려해 조건 1~4를 설정해 볼게요.  
 ㉠ 발표 능력이 높은 학생에게는 가장 어려운 조건의 과제를 수행하게 해야겠어요.

		쟁점에 대한 청중의 개인적 관련성	
		낮음	높음
주장에 대한 청중의 기존 입장	반대	조건 1	조건 2
	중립	조건 3	조건 4

(라) 김 교사의 수업 성찰 일지  
 과제 난도를 학생의 능력에 맞춰 제시하니 모든 학생이 흥미를 갖고 과제를 수행했다. 그런데 일부 학생이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조직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다음번에는 주장에 제기될 수 있는 ㉠ 반론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것, ㉡ 반론을 소개할 뿐 반박하지는 않는 것, ㉢ 반론을 언급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설득에 더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게 해야겠다.

<작성 방법>  
 ○ (가)와 (나)를 참고하여, ‘김 교사’가 ㉠에게 ‘조건 1~4’ 중 무엇을 제시했는지 밝히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할 것.  
 ○ ‘김 교사’가 ㉠에게 제시했을 ‘조건’에서 ㉠~㉢ 중 어느 것이 설득에 가장 효과적일지 밝히고, 그 이유를 해당 ‘조건’의 청중의 메시지 처리 동기 측면에서 서술할 것.

6. 다음을 읽고, 고쳐쓰기 교수·학습 방안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김 교사의 수업 활동 개요

- 고쳐쓰기 활동의 목적  
초고의 내용과 형식을 검토하며 오류를 수정한다.
- 고쳐쓰기 활동의 절차와 방법  
첫째, 초고를 다 쓴 이후, 오류를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며 읽고, 오류를 발견하면 표시를 해 둔다. 이때 글 전체 및 문단 수준에서 글의 주제 및 내용, 구성을 검토하고, 문장 및 어휘 수준에서 표현이 적절하며 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읽는 과정에서 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초고에 대해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 작업을 진행한다.

(나) 수업 연구회

- 하 교사: 오늘 수업 연구회의 주제는 ‘고쳐쓰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쳐쓰기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김 교사: 저는 학생들이 고쳐쓰기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쓴 초고를 읽으며 글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하 교사: 활동 개요를 잘 보았습니다. 고쳐쓰기 활동을 개발하며 특별히 신경 쓴 점은 무엇인가요?
- 김 교사: ㉠ 평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여 어법상의 정확성과 글 내적 구조의 완결성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 박 교사: 김 선생님의 고쳐쓰기 활동 개요가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하고 있어서 좋지만 ㉡ 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관점에 근거해서 고쳐쓰기를 다룰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하 교사: 그리고 고쳐쓰기 과정에서 ㉢ 필자의 자기중심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가하면 더 좋겠네요.

<작성 방법>

- ㉠와 ㉡에서 각각 고쳐쓰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차이를 서술할 것.
- ㉢이 무엇인지 소통으로서의 글쓰기 측면에서 설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1가지 쓸 것.

7. 다음을 읽고, 읽기 쓰기 통합 수업의 지도 방안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수업 목표

- 사회적 현상을 주제로 한 글을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고, 읽은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점을 담아 주장하는 글을 쓴다.

(나) 수업 활동지

- **활동 1** 제시된 자료를 읽고, 중심 내용을 적으시오.

읽기 자료 ①

윤리적 소비는 건강, 환경, 사회, 인권 등의 ‘윤리적 가치’를 소비 결정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소비 행동을 뜻한다. 이는 품질과 가격이라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한 지를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는 그 성격에 따라 사회적 차원, 생태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소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소비하는 것 등을 권장한다. 생태적 차원에서는 자연 생태계와의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며, 재활용품 및 친환경 제품의 구매 등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소비자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소비를 추구하며, 안전하게 재배한 유기농 음식을 구매하는 것 등을 권장한다.

- ☞ 중심 내용: 윤리적 소비는 환경을 가장 우선시하는 소비이다.  
윤리적 소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읽기 자료 ②

대량 생산·대량 소비 체제는 탄소를 대량으로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를 심화한다. 반면 윤리적 소비는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소비자는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보호에 일조할 수 있다. K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식품 기업 S사에서 출시한 비닐 라벨 제거 생수는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분리배출의 편의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어 3년간 플라스틱을 약 2,570톤 절감했다고 한다. 또한 지역 먹거리를 이용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가 줄어 유통 시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 ☞ 중심 내용: 윤리적 소비는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 **활동 2** ‘윤리적 소비’에 대해 주장하는 글 쓰기 계획을 세우고, 읽기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정리하시오.

1. ‘윤리적 소비’에 대해 주장하는 글 쓰기 계획 세우기

- 글의 주제: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자.
- 쓰기 목적: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할 것을 설득함.
- 예상 독자: 학급 친구들

2. 글쓰기에 필요한 정보를 읽기 자료에서 선별하기

구분	선별한 정보
1) 윤리적 음식 소비가 필요한 까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에 유익한 소비(← 읽기 자료 ①)</li> <li>• 환경 보호에 기여(← 읽기 자료 ②)</li> </ul>
2)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먹거리 소비(← 읽기 자료 ①, ②)</li> <li>• 재활용품 구매(← 읽기 자료 ①)</li> <li>• 유기농 음식 구매(← 읽기 자료 ①)</li> </ul>

○ **활동 3**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하시오.

**음식은 윤리적으로 소비합시다**

소비를 통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윤리적 소비’가 하나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에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해야 할 필요성과 그 실천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우리 모두는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A] 왜냐하면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일은 공동체에 이롭고, 특히  
 └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지역 먹거리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 재활용품 구매하기, 유기농 음식 소비하기 등과 같은 방법도 있다.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한다.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윤리적 소비 실천은 결국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돌아올 것이다.

**(다) 교사 간담회**

김 교사: 읽기 쓰기 통합 과제를 해결할 때 학생들은 독자와 필자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글을 읽을 때에는 ㉠ 글의 중심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나아가 ㉡ 글쓰기에 필요한 정보 선택도 목적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두 부분 모두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 교사: 글의 주제는 잘 설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문단이 ㉢ 논증의 구성 요소인 주장, 이유, 근거 중 하나를 누락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작성 방법>—

- ㉠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활동 1**에서, ㉡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활동 2**의 ‘선별한 정보’에서 각각 1개씩 찾아서 설명할 것.
- **활동 3**의 [A]에서 ㉢ 중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A]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방안을 읽기 자료 ②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

8. <자료 1>은 과제에 대한 한 학생의 답안 중 일부이고, <자료 2>는 그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 중 일부이다. 단어의 구조 및 형성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자료 1>—

**문제 1** 파생어와 합성어의 예를 순서대로 하나씩 써 보자.

( 코웃음, 돌다리 )

⋮

**문제 3** 의미가 같으나 형태가 다른 접두사, 접미사가 쓰인 단어의 짝을 순서대로 하나씩 써 보자.

( 되물다/뒤흔들다, 바삭대다/바삭거리다 )

⋮

**문제 5** 두 개 이상의 단어 중 일부가 결합하여 새 단어가 된 경우를 두 개만 써 보자.

( 아침 + 점심 → 아점,                    π π                    )

⋮

—<자료 2>—

교사: 선영아, 과제를 열심히 해 왔구나. 대체로 잘했지만 고칠 것도 눈에 띄는데 한번 볼까? **문제 1**에서 제시한 단어는 둘 다 합성어인데 왜 그럴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영: 아, 선생님. 제가 착각했어요. ‘코웃음’은 파생 접미사가 있기는 하지만 ㉠ 합성어네요. ‘비웃음’이면 되나요?

교사: 그래, 바로 이해했구나. 그럼 **문제 3**을 볼까? ‘-대다’와 ‘-거리다’는 의미가 같으나 형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되-’와 ‘뒤-’도 그럴까?

선영: 아, 그렇네요. ㉡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럼 ‘새빨갳다/시뻘겋다’와 같은 예를 쓰면 되나요?

교사: 그래, 잘 맞았어. 그런데 **문제 5**의 답은 하나밖에 안 썼네. 예를 하나 더 들면 ‘대학’과 ‘입학’을 결합하여 ‘대입’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아점’과 ‘대입’은 형성 방식 면에서 ㉢ 차이점도 있어.

—<작성 방법>—

- ㉠과 같이 말한 이유를 합성어 또는 파생어의 정의에 근거하여 설명할 것.
- ㉡과 같이 말한 이유를 ‘되-’와 ‘뒤-’ 각각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설명할 것.
- ㉢의 내용을 계열 관계, 결합(통합) 관계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할 것.

9. 다음을 읽고, <자료>를 분석하여 구개음화와 관련된 음운사적 사실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현대 국어에서는 ‘경구개 자음-모음’ 연쇄와 ‘경구개 자음-y계(j계) 이중모음’ 연쇄가 대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표기상으로는 ‘(자신감을) 가져’처럼 ‘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발음은 [가져]이다.

㉠ 15세기 국어에는 구개음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 국어에 발생한 구개음화에는 /ㄷ/ 구개음화뿐만 아니라 /ㄱ/가 /ㅈ/로 바뀌는 /ㄱ/ 구개음화도 있었다. /ㄷ/ 구개음화는 단어의 형태를 바꾸는 변화를 야기했지만, /ㄱ/ 구개음화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았다. 현대 국어에서 단어 내부에 ‘디, 다, 더...’와 같은 음절을 가진 단어를 찾기 어려운 것은 /ㄷ/ 구개음화가 적용된 형태로 단어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칙에 따라서는 어간의 형태를 바꾸는 변화를 야기한 경우도 있다.

드물지만 언중이 오분석하여 어간의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ㅂ/ 불규칙 용언 ‘줍-’이 이에 해당한다. ‘줍-’은 15세기 국어에서는 ‘중-’이었는데, /ㅈ/ 소멸 후 ‘주스니 > 주으니’로 변화되었고, 이 ‘주으니’가 다시 ‘주우니’로 변동되었다. 이 ‘주우니’를 /ㅂ/ 불규칙 활용형으로 오분석하여 ‘줍-’으로 어간의 형태가 바뀌었다.

<자 료>

(1)

15세기	
ㄱ.	저[自] : 저[筋]
ㄴ.	창[度] : 창[醬]

(2)

		15세기	18세기	현대 국어
ㄱ.	/ㄷ/ 구개음화	디-	지-	지-
ㄴ.	/ㄱ/ 구개음화	기울-	지울-	기울-

(3)

15세기	18세기	현대 국어
맛디-	맛지-	맡기-

<작성 방법>

- (1)이 말해 주는 15세기 국어 /ㅈ/의 음운적 특성을 설명할 것.
- ㉠의 이유를 구개음화의 발생 조건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
- (2)를 토대로 (3)에서 ‘맛디- > 맡기-’의 형태 변화를 설명할 것.

10.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해석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물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우에 흘린 따듯한 핏방울.

[A]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나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속히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

못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물이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나리고  
 눈 우엔 아직도 따듯한 핏방울……

- 오장환, 「성탄제」 -

<보 기>

성탄제는 관습적으로 ㉠ 생명, 구원 등을 의미한다. ‘성탄제’는 이 시에서 시어로 쓰이지 않았지만 제목을 통해 시적 배경으로서 환기된다. 시의 맥락을 고려하면 성탄제의 관습적 의미는 ㉡ ‘어린 사슴’의 바랄과 연관되며 시의 주된 정서를 드러내는데 관여한다. 한편 이 작품은 여러 종류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구체화하는데, ㉢ 시가 창작된 배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환기하는 상황은 당대의 파시즘적 억압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 중 1가지를 사용하여 ㉡의 내용을 설명하고, ㉡에 담긴 시의 주된 정서를 중심으로 ‘성탄제’가 시적 배경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서술할 것.
- [A]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의 표현 방식을 쓰고, [A]가 환기하는 상황을 ㉢의 관점에서 서술할 것.

11.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앞부분 줄거리] 인민군이 점령한 고향 마을에서 인민재판이 열리고, 현은 사람들이 처형되는 광경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총을 탈취해 동굴로 도망친다.

오랜 회상에 잠겼던 현은 감았던 눈을 크게 뜨며 어두운 하늘에 송송이 박힌 별들을 쳐다보았다. 뚝! 동굴 안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어느덧 바람은 자고 벌레 소리가 있었다.

그다음의 일을 더듬을 수 있는 분명한 기억이 없었다. 그것은 불연속선. 순간적으로 내민 자기의 주먹에 쓰러지던 연호. 앞에 버티고 섰던 보안서원의 소총을 낚아채고 군중의 틈으로 빠져나가던 기억. 수라장이 된 네거리. 집행 [A] 자들의 고향과 군중들의 비명. 몇 발의 총성. 눈앞에 드리웠던 황갈색 베일. 그 베일을 통해 눈에 뛰어 들던 땅을 밟으며 어디를 어떻게 달리었던지. 쫓기던 끝에 ××강 하류에 이르러 물속에 뛰어 들던 기억. 그래도 소총은 그 손에 있었다.

‘그때의 충동.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마음의 충동은 그 무엇이였을까. 이 검은 눈으로 목격한 살인. 목격은 일종의 목인. ㉠ 목인하는 군중의 일원으로 그대로 늘이고 있을 수 없었던 마음의 줄. 그리고 아픔. 희생자의 머리와 어깨와 허리에 내려지는 아픔은 곧 나 자신의 머리와 어깨와 허리에 가해지는 아픔이었다. 어찌하여? 나와 그와 그리고 모든 군중. 거기에는 아무런 육체적인 연결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아픔을 느꼈다. 그리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리고 결국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이다.’

현은 지난날의 그 몇 번인가의 저항의 충동을 생각해 보았다. [B] 일인(日人) 교수에 대한 반발 — 자기혐오와 함께 몸을 오므린 퇴각. 학교장에 대한 항의 — 겸연쩍어 사직을 하고 만 패배. 아니 패배. 일군(日軍)에서의 탈주 — 또다시 연안(延安)에서의 도주, 도피의 연속.

어느 때 정면으로 싸워 본 일이 있었던가. 단 한 번. 그것은 극히 어리던 시절의 일. 할아버지의 흑을 두고 얼굴에 흘린 피와 갈기갈기 찢긴 옷. 뜻밖에도 할아버지는 노하셨지. 모든 거북한 일에 등을 돌리는 습성이 내 가슴에 깃든 것은 어느 때부터였던가. 그리고 껍질 속에 몸을 오므린 삼십 년의 결산은 결국 도망을 놓았다는 것이다.

... (중략) ...

껍질 속에 몸을 오므리고 두더지처럼 태양의 빛을 꺼린 삶.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있었다. 마치 돌맹이처럼. 결국 너는 살아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살아 본 일이 없다면 죽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살아 본 일이 없이 죽는다는 것, 아니 죽을 수도 없다는 안타까움이 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포의 감정을

휘몰아 왔다. 현은 잃어져 가는 생명의 힘을 돋우어 이 공포의 감정에 반발했다.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다시 죽어야 한다.’

현은 기를 쓰는 반발의 감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힘이 움터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힘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무게를 가하더니 전신에 어떤 충족감이 느껴지자 현은 가슴속에서 갑자기 우직 하고 깨뜨려지는 자기 껍질의 소리를 들었다. 조각을 내고 부서지는 껍질. 그와 함께 거기서 무수한 불꽃이 튀는 듯했다. 그것은 다음 차원에의 비약을 약속하는 불꽃. 무수한 불꽃. 찬란한 그 섬광. ㉡ 불타는 생애의 의욕. 전신을 흐르는 생명의 여율. 통절히 느껴지는 해방감. 현은 끝없이 푸른 하늘로 트이는 마음의 상쾌를 느꼈다.

‘나머지 한 알의 탄환. 것처럼 내가 살아남는 것이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일까.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먼저 나 자신이 선택할 것이다. 다음은 — 그것은 더욱 누구도 모른다.’

[C] 분명한 한 가지는 외면하거나 도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정면으로 대하자. 도피할 수 없도록 결박된 이 처지. 정면으로 대하도록 기어코 상황은 바깥 내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 (중략) ...

이웃을 보는 눈 귀 하나에도 조심을 담고, 건네는 한마디의 얘기에 남을 괴롭힐사 애쓰는 인간들. 늙은, 젊은, 어린 남녀의 수많은 얼굴들. 그리운 그 얼굴들이 있지 아니한가. 나는 외로울 수 없다. 이제부터 그들 가운데서 잃어진 나 자신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청부업자들을 격리하고 주어진 땅 위에 그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세우자. 거기에 내 덩의 삶을 바치는 것이다. 청부업자들의 교만과 포악을 곧 같은 인간인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돌리고 한결같이 고통을 참고 견디어 온 ‘조용한’ 인간들. 광기의 청부업자는 사라지고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가 외야 한다. ㉢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 ……

- 선우휘, 「불꽃」 -

<작성 방법>

- [A]의 서사적 기능을 사건 전개상 [B]와의 관계 측면에서 서술하고, [B]의 서사적 기능을 인물의 성격 변화 측면에서 [C]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 ㉡에 함축된 인물의 내면 의식이 명시적으로 부각된 부분을 찾아 쓰고, ㉠과 ㉢을 활용하여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서술할 것.

12. 다음을 읽고, 작품의 특징을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가)

또 어떤 대장부가 있어 배움을 입고 가죽띠를 둘렀으며, 흰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노쇠하여 비틀거리며 굽어진 허리로 걸어와 말했다.

“저는 서울 성 밖의 큰길가에 살면서, 아래로는 넓은 들판의 경치를 바라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높다란 산에 기대어 사는 ㉠ 백두옹이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좌우에서 공급하는 것이 비록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고 옷장에 옷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도, 반드시 좋은 약으로 기운을 북돋우고 아픈 침으로 독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실을 만드는 삼[麻]이 있더라도 띠풀을 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무릇 모든 군자는 어느 세대에나 없지 않으니, 모르겠습니까만 왕께서도 그러한 뜻이 있으신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왔는데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니, 화왕이 말했다.

“장부의 말에도 합당한 것이 있으나 아름다운 사람은 얻기 어려운 것이니 이를 어떻게 함이 좋을까?”

그러자 대장부가 다가와 말했다.  
“저는 왕께서 총명하셔서 이치와 옳은 것을 알 것으로 생각하여 여기에 왔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무릇 임금된 자 중에는 사특하고 아침하는 자를 가까이하지 않으면서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한 자가 드물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맹가(孟軻)는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고, 풍당(馮唐)은 낮은 낭중(郎中) 벼슬에 묶여 늙었습니다. 예로부터 이러하였으니 저인들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 설총, 「풍왕서」 -

(나)

갑자기 문밖이 소란해지더니, 문지기가 손님이 왔다고 급히 아뢰었다. 왕은 천천히 말했다.

“오래전에 ㉡ 조래선생, 수양처사, 동리은일과 모임 약속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마침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빈객으로 높이 대우해 왔으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전각에서 내려가 용모를 가다듬고 기다렸다.

한 사람은 푸른 수염에 키가 크고 기개가 높았다. 또 한 사람은 곧고 준엄하며 절조가 말쑥하고 깨끗한 모양이었다. 마지막 한 사람은 누런 관을 쓰고 수수한 옷을 입었는데 덕의 향기가 얼굴에 가득하였다. 세 사람이 이르러서는 길게 인사만 하고 절을 하지는 않으면서 말했다.

“저희는 야인(野人)이라 성품이 속되고 게을러서 예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왕은 더욱 자신을 낮추어 그들을 예우하였다. 드디어 전각에 올라와서는 자리를 정해 주고 마주 보고 앉았다.

[중략 줄거리] 옥비, 부용성주 주씨 등도 함께 자리하였다. 모두 돌아가며 시 한 편씩을 읊자, 왕은 모두에게 찬사의 말을 건넸다.

이 부인과 반희가 노래하자, 왕이 시동에게 명하여 옥돌쟁반에 화려한 채색 비단을 담아 하사하며 말했다.

“마땅히 비단을 내릴 만하다.”

두 사람은 왕의 은혜에 절하고 자리에 앉았다. 조래선생이 언짢아하는 얼굴로 수양처사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취하면 물러가야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인사도 없이 담을 넘어 훌쩍 가 버렸다.

이 부인은 농담으로 수양처사와 동리은일에게 말했다.

“옛날에 어떤 처사가 노래에 놀라 담을 넘어 도망했습니다. 좌중의 어떤 이가 희롱하며 말하기를 ‘홍분(紅粉)의 즐거움을 산새가 알 리 없지. 단판(檀板) 소리 울리니 놀라서 날아가네.’ 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를 말함입니다.”

두 사람은 대답 없이 잇달아 나가 버렸다. 안빙도가 보겠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이 작별을 아쉬워하며 안빙을 배웅하였다. 왕이 예관에게 명하여 전별 의식을 행하는데, 채단과 수놓은 비단, 금은, 진귀한 노리개 등이 뜰에 즐비하였다. 안빙은 절을 하고 문을 나섰다.

한 미인이 문밖에 서 있다가 안빙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오늘 놀이는 즐거우셨습니까?”

... (중략) ...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둥소리가 쿵 하고 땅이 갈라지는 듯하게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 곧 한바탕 꿈이었다. 술기운이 몸에 배어 있고 꽃향기가 옷에 배어 있었다. 명한 정신으로 일어나 앉으니 부슬비가 왜나무에 내리고 천둥의 여운이 은은하였다.

- 신광한, 「안빙몽유록」 -

<보 기>

우언(寓言)은 의인화된 사물을 통해 ㉠ 인간 세계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드러낸다. (가)는 신라의 학자 설총이 왕에게 들려주었다는 경계(警戒)의 우언이다. (나)는 조선 중기의 문신 신광한이 지은 우언 형식의 작품으로, 임몽 및 각몽 표지와 더불어 ㉡ 몽중 사건과 현실 세계의 관계를 암시하는 서사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작성 방법>

- ㉠과 ㉡이 왕에 대해 보이는 언행의 대비적 양상을 쓰고,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을 서술할 것.
- ㉡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 쓰고, ‘몽중 사건과 현실 세계의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